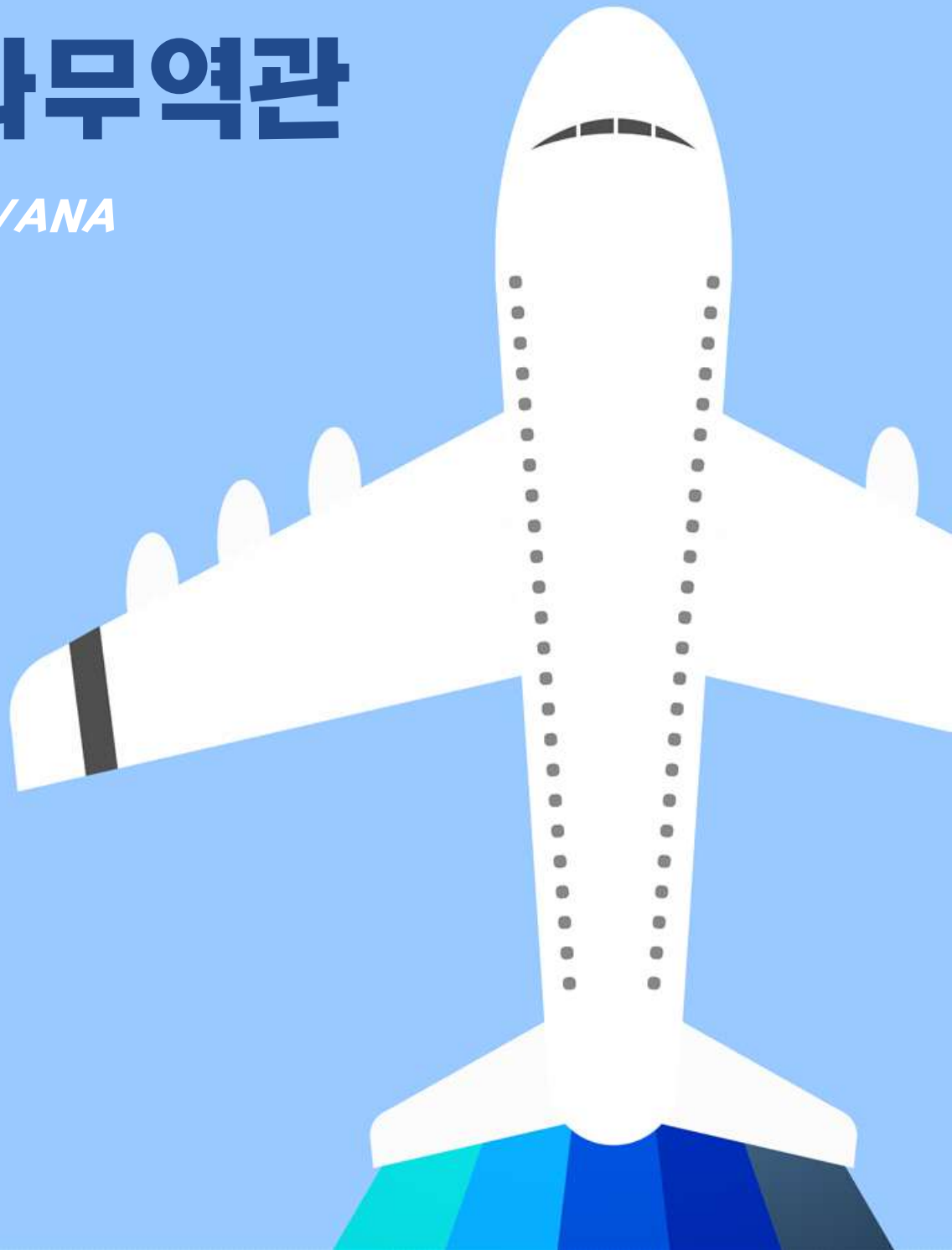


2025 해외출장 가이드

쿠바

아바나무역관

KOTRA HAVANA



목 차

I. 국가개요	01
II. 주요 경제지표	02
III. 한-쿠바 관계	03
IV. 2023년 주요 이슈	04
V. 쿠바 역사·경제·교역 동향	07
VI. 상관습 및 비즈니스 유의사항	17
VII. 체류정보	19

I. 국가개요

국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바공화국(República de Cuba) - 수도 : Ciudad de la Habana - 15개 주(Provincia) 및 1개 특구(Municipio Especial)로 구성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리브해에 위치한 도서 국가 ○ 서쪽 : 멕시코, 북쪽 : 미국 플로리다, 동쪽 : 아이티
면적	○ 109,884 km ² (한반도의 1/2)
기후	○ 아열대 기후 (12월~2월 18°C~27°C, 3월~11월 24°C~32°C)
수도	○ 아바나 : 스페인어 Ciudad de la Habana, 영어 Havana
인구	○ 10,055,968명 (쿠바통계청, 2024년 연감)
주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바나(La Habana) : 수도. 정치 및 경제 중심지 ○ 산티아고 데 쿠바(Santiago de Cuba) : 쿠바 동부 제2의 도시 ○ 바라데로(Varadero) : 중부 마탄사스주 소재. 외국인 관광특구
인종	○ 백인 64.1%, 물라토 및 혼혈 26.6%, 흑인 9.3%, 동양계 1%
언어	○ 스페인어
종교	○ 카톨릭 85%, 그 외 신교도, 유대교 등, 무신교 (3.9%)
시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시각보다 14시간 늦음(한국의 정오는 전날밤 10시) ○ 4월부터 10월경까지 일광절약시간제 실시로 한국과의 시차는 13시간
독립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2.5.20 - 1898.12.10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3년간 미국 군정실시
정부형태	○ 공화제, 국가평의회(Consejo del Estado)에 권력 집중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아스 카넬(Miguel Diaz-Canel) 대통령 - 취임일 : 2018.4.19. (임기 : 5년) - 23년 4월 재선이 확정되어 2028년까지 대통령직 수행
실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아스 카넬 대통령(각료회의 의장, 쿠바군 최고사령관, 쿠바 공산당 제1서기직)이 국가 통수권자이며, 2018년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 - 2019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 및 총리직을 신설, 마누엘 마레로 총리가 내치를 담당

II. 주요 경제지표

GDP	○ US\$ 263억('22년), US\$ 2억('22년), US\$ 272억('23년)
실질경제성장률	○ 1.3%('21년), 1.8%('22년), 2%('23년)
1인당 국민소득 (PPP 기준)	○ 1인당 GDP : US\$ 15,949 ('24년) * 무상 제공되는 공공의료 및 교육을 포함, 구매력평가에 의해 산출된 1인당 GDP
실업률	○ 1.8%('22년), 1.8%('23년), 1.7%('24년)
물가상승률	○ 31.1%('21년), 39.9%('23년), 29.9%('24년) * 소비자물가 기준
화폐단위	○ 쿠바페소(CUP) : 2021년부터 쿠바내 유일 화폐로 사용 * 94년부터 통용되던 태환페소(CUC)는 2021년 1월 1일부로 폐지
환율	○ US\$: CUP = 1 : 120 * '22년 8월 고정환율을 기존 24에서 120으로 전격 인상. 다만 쿠바내 기업간 거래환율은 그대로 24 적용 * '25년 5월 기준, 쿠바 내 환전소/은행에서 달러 인출은 불가. 매입은 규정상 하루 100달러 한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외채	○ US\$ 261억('21년), US\$ 272억('22년), US\$ 276억('23년) * 24년 통계 미발표
산업구성	○ 농업 2.5%, 제조업 19.1%, 서비스업 77.7%
외국인 직접투자	○ US\$ 9억2100만('22년), US\$ 11억9700만('23년), US\$ 13억('24년)
교역규모	○ 2021년: 수출 U\$ 20.6억, 수입 U\$ 84.3억 ○ 2022년: 수출 U\$ 18.5억, 수입 U\$ 102.1억 ○ 2023년: 수출 U\$ 18.7억, 수입 U\$ 112.6억 * 24년 통계 미발표
교역품	○ 수출 : 석유, 니켈, 담배, 약품, 설탕, 커피, 럼주 ○ 수입 : 공산품 대부분, 기계, 원유, 식료품, 화학제품

주: 2023년, 2024년 추정치 / 자료: EIU, IHS, ONEI(2025년 5월 기준)

Ⅲ. 한-쿠바 관계

체결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2.14. 양국 수교 ○ 체결 협정 없음
교역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대 쿠바 수출 U\$ 2,239만, 대 쿠바 수입 U\$ 397만 ○ 2022년: 대 쿠바 수출 U\$ 1,381만, 대 쿠바 수입 U\$ 709만 ○ 2023년: 대 쿠바 수출 U\$ 3,567만, 대 쿠바 수입 U\$ 682만 ○ 2024년: 대 쿠바 수출 U\$ 2,017만, 대 쿠바 수입 U\$ 790만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쿠바 수출: 도금강판, 자동차, 자동차 부품, 원동기, 타이어, 의약품, 용접기, 산업기계 등 산업재 위주 ○ 대 쿠바 수입: 연초, 스크랩, 주류(럼), 시가, 커피, 설탕, 식물성 유지 등 1차산업 / 식품류 위주
투자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교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1년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들의 후손 약 1천여명 거주 - 6세대째 이어지고 있음 ○ 최근 10년 이내 쿠바에 상주하기 시작한 한국 국적자는 30명 내외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 2005년 9월부터 무역관을 공식 개설 경험증진 활동 중 ○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자동차, 가전제품, 타이어 등 대기업 제품들이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쿠바시장에 진출 ○ 쿠바의 에너지혁명 추진시기에 현대중공업이 컨테이너형 디젤 발전기를 수주하여 2005~2010년간 총 464대(888MW)를 납품, 당시 쿠바 전체 전력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는 규모를 공급함 ○ 2024년 대쿠바 수출액은 전년대비 43.4% 감소한 2017만 달러 기록 - 대쿠바 수출액은 미-쿠바 관계 개선 직후인 2017년 7,078만 달러로 고점을 찍은 이후 미국의 對쿠바 제재 강화, 쿠바정부의 수입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출보험 불가 등의 사유로 하향세 기록 중 ○ 2024년 연간 대쿠바 수입액은 총 790만 달러로, 일반적으로 수입규모는 400만 달러~800만 달러 수준을 유지

IV. 2025년 주요 이슈

가. 민간중소기업, 제한적 틀 내에서 지속 성장 기대

- 쿠바는 '59년 공산혁명 이후 모든 경제활동을 국영기업을 통해 수행해 왔으나 '21년 9월 민간기업의 설립을 허가하는 전격적인 조치를 취함
- MIPYMES로 불리는 쿠바의 민간중소기업은 설립허가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11,000개사가 활동 중이며 GDP 14%, 고용 15%를 차지하는 새로운 경제의 축으로 부상
 - * 일부 자영업에 국한되었던 민간참여를 기업단위로 확대한 최초의 조치
- 쿠바 정부의 낮은 신용도, 부족한 외환, 낮은 생산성으로 정부의 공급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민간기업은 식료품, 세재 등 생필품의 주요 공급처 역할을 수행
 - 민간기업은 제품 대다수를 미국, 멕시코, 스페인 등 주요 교역국에서 수입
 - 업종은 식품유통 중심에서 고급식당, 자동차수리, 건축업으로 점차 확대
- 물가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정부는 가격상한제, 현찰거래금지 등 규제 도입
 - 민간기업은 물품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에 높은 인플레이션(22년 79%, 23년 39%)과 빈부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됨
 - * 최저임금인 2100 CUP는 USD 17.5 수준으로, 달러수입이 없으면 민간기업 제품 구매가 어려움
 - 이에 정부는 24년 7월 6개 생필품(닭고기, 식용유, 분유, 파스타, 소시지, 가루세제)에 가격상한을 부과하고 거래투명성 제고와 세수확보를 위해 9월 19일부터 모든 민간기업 거래에 현찰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함
- 정부의 규제에도 민간중소기업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재정적자, 미국의 경제재제 등으로 쿠바 정부의 공급자 역할이 개선될 여지는 적은 바, 시장 공급자로서의 민간기업 역할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최대 100인 이하라는 규모적 한계, 설립허가권이전(중앙정부→지자체), 현금거래 금지 등 규제도 도입되고 있어 제한적인 틀 안에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나. 한-쿠바 수교에 따른 양국 교류 확대 기대

- 24년 2월 14일 외교공한 교환을 통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

 - KOTRA는 1996년 이래 아바나 국제박람회 한국관 참가, 아바나무역관 설립 (2005년), 서울국제식품전 쿠바관 조성,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KSP) 추진을 통해 쿠바 정부 주요인사와 기업인을 초청하며 교류확대를 위해 노력해옴
- 한국의 대쿠바 수출은 거래는 '05년 현대중공업의 디젤발전기 수주(644대, 7억 2천만 달러)로 본격화 되어 '08년 3억 4479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

 - 이후 '09년~14년간 베네수엘라의 원조로 경기가 활성화되어 한국의 발전기 유지보수 장비, 자동차, 가전제품(에어컨)의 대쿠바 수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짐
 - '15년 미-쿠바 수교에 따라 경제 활력이 지속되어 우리 수출 역시 '17년 7078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쿠바 봉쇄정책 강화로 우리 수출 역시 하락세로 전환됨
 - 쿠바 경제 약화로 신용도가 저하되어 '18년 K-Sure의 수출보험 제공 중단'
 - '22년 코로나 충격의 지속 등으로 쿠바 경기악화로 우리수출 역시 최저치인 1381만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수요 회복으로 '23년에는 전년대비 158% 증가한 3567만달러의 수출을 달성함
- 수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쿠바제재 지속으로 교역확대에는 시간이 필요

 - 미국의 금융제재로 국내외 은행이 쿠바 거래를 기피하여 제3국 활용이 일반적
 - * 제3국 달러가 외국계좌에서 국내로 송금, 물품은 한국에서 수령하여 운송
 - 무역보험부보가 어려워 교역 확대 애로사항으로 작용
 -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등 주요교역국은 대쿠바 무역보험제공 중단 중
 - 쿠바 경제는 2018년 코로나 이전 시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활력 저하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쿠바 제재 강화, 코로나19 봉쇄, 2021년 화폐개혁 영향 등으로 불경기가 지속, 2023년 GDP는 -1.9%를 기록
- 쿠바측 관심이 큰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협력이 유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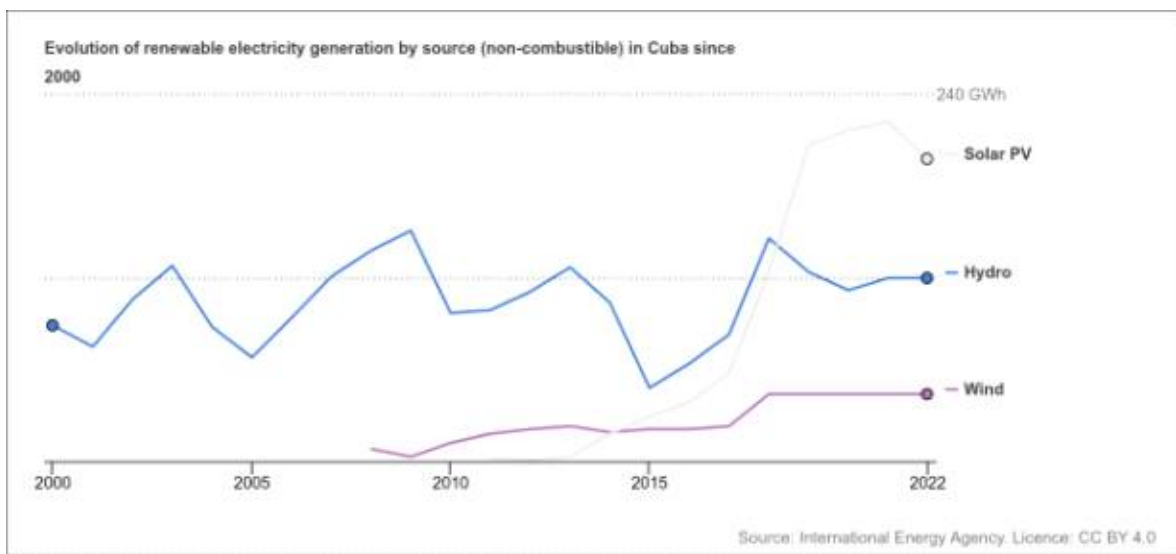
 - 수교를 계기로 ODA를 본격화 하여 쿠바 관심분야 (농식품생산, 신재생에너지, 자원재활용 분야 등) 협력사업 추진 기대

다. 전력 부족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우방국 협력 강화

□ 만성적인 전력부족에 시달리는 발전·송배전, 신재생에너지로 돌파 모색

- 2022년 쿠바의 경제생산단위별 에너지 공급량(Total Energy Supply per Unit of Economic output)은 2000년과 비교해 61% 감소
- 현재 쿠바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95%는 화석의료에 의존. 이는 큰 규모의 강이 없어 수력발전 확대가 어려운 지리적인 원인에도 기인함
- 수력,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는 전체 전력발전의 5%를 차지. 태양광 발전은 2009년에 첫 도입된 이후 급속히 증가해 2018년부터는 수력발전을 제치고 비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쿠바정부는 자국산 에너지원 사용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중장기 목표로 삼으며,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율을 24%까지 확대 추진

<2000년 - 2022년 쿠바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자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중국 등 우방국의 지원을 통해 전력생산 확대를 추진

- 2024년 9월 중국공산당은 쿠바전력공사(UNE)에 발전기 10대(10MW)를 기증
- 2024년 6월 중국국제개발협력단은 Villa Clara, Ciego de Avila, Holguin의 세 지역에 합산 12M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전달하는 기공식을 개최

V. 쿠바 역사·경제·교역 동향

1. 쿠바 역사

- 쿠바는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 경영의 핵심지에서 노예 무역의 중심지로, 다시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는 시기를 거쳐 20세기 후반에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반미·반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함

대항해 시대 및 스페인 식민지 시기
1492년, 콜롬버스(Christopher Columbus) 쿠바 도착 1511년, 디에고 데 벨라스케스(Diego de Velazquez)가 바라코아에 최초 정착지 설립 1526년, 아프리카에서 노예 수입 시작 1762년, 조지 포콕 제독(Admiral George Pocock)과 알버말 경(Lord Albemarle)이 이끄는 영국군이 아바나를 점령 1763년, 파리 조약으로 아바나가 스페인 반환
독립전쟁 시기
1868년~1878년, 제1차 독립전쟁(10년 전쟁, Guerra de los Diez Años) 1886년, 노예제 폐지. 1895년~1898년, 제2차 독립전쟁, 미국-스페인 전쟁 발발 1898년, 미국 승리, 스페인은 쿠바에 대한 모든 영유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양도
독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향권으로 편입
1902년, 공식적인 독립. 그러나 플랫 수정안(Platt Amendment)에 따라 미국은 필요시 쿠바 문제에 필요시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1906년~1909년, 호세 미겔 고메즈(Jose Miguel Gomez)를 중심으로 한 내전으로 미국이 플랫 수정안을 근거로 쿠바를 재점령 1912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미해병대가 재점령 1925년, 사회당(Socialist Party) 창당, 향후 공산당의 기초 1933년, 바티스타(Fulgencio Batista) 중사가 쿠데타로 군사정부 수립 1934년, 미국과 플랫 수정안 폐기에 합의 1944년, 바티스타 은퇴하고 민간정부에 권력 이양 1952년, 바티스타가 다시 권력을 장악 1953년, 피델 카스트로 주도로 몬카타(Moncada) 병영 공격, 실패 후 멕시코 망명 1956년, 카스트로 혁명군이 쿠바 상륙,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맥에서 게릴라 전쟁 수행 1958년, 미국이 바티스타에 대한 군사 원조를 철회

혁명의 열기
<p>1959년, 혁명군의 군사적 승리로 바티스타 도주. 피델 카스트로는 총리, 동생인 라울은 부통령으로 취임</p> <p>1960년, 쿠바 내 모든 미국 기업에 대해 보상 없는 국유화 조치 선언</p> <p>1961년, 미국이 쿠바와의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 미국이 쿠바 망명자들을 중심으로 한 피그만 침공 후원했으나 실패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를 공산주의 국가로 선포</p> <p>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미주기구(OAS), 쿠바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사유로 회원국 자격 정지</p> <p>1965년, 쿠바정권의 유일 정당명을 공산당으로 변경</p> <p>1972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국제경제협력기구인 경제상호원조회의(코메콘,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의 정회원 가입</p>
아프리카 개입 및 군사 국제주의
<p>1976년, 쿠바 공산당,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을 승인하고 카스트로를 대통령으로 선출</p> <p>1976년, 앙골라 내전 개입, 이후 에티오피아-에리트리아 전쟁 개입</p> <p>1980년, 마리엘 보트사태, 약 125,000명의 쿠바인이 미국으로 탈출</p> <p>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 지원</p> <p>1988년, 남아공과의 합의하에 앙골라 철군</p>
구소련 붕괴 이후의 특별시기(Periodo Especial)
<p>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소련 군사고문 철수</p> <p>1993년, 미국이 쿠바민주화법(Cuban Democracy Act), 일명 토리첼리법(Torricelli Act)으로 경제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미국 달러의 합법화, 국영 농장의 반자율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제한된 사기업 합법화 등의 자율화 조치 시행</p> <p>1994년, 난민급증에 따라 미국이 연간 2만 명의 쿠바인을 받기로 하는 협정 체결</p> <p>1996년 쿠바가 마이애미에 기반을 둔 쿠바 망명자들이 운항하던 미국 항공기 두 대를 격추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쿠바자유민주연대법(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 일명 헬름스-버튼법(Helms-Burton Act) 통과</p> <p>199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쿠바 방문</p> <p>1999년, 쿠바 어린이 엘리안 곤살레스(Elian Gonzalez)가 가족과 플로리다로 탈출하던 중 배가 전복하여 구조. 미국내 엘리안 송환여부를 둘러싼 논쟁 격화</p> <p>2000년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엘리안 쿠바로 송환 미국 하원, 쿠바에 대한 식품 및 의약품 판매 승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 쿠바를 방문, 양국관계 증진을 위한 협정에 서명</p> <p>2001년 허리케인 미셸의 피해를 수습하기 위한 쿠바 정부의 요청에 따라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쿠바에 식량을 수출</p>

관타나모(Guantanamo)에 쏟아지는 세계적인 관심	
2002년 1월,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연행된 수감자들이 알카에다 용의자로 심문을 받기 위해 관타나모에 위치한 미군기지로 이송시작	
1월, 루르드(Lourdes)에 있던 러시아의 마지막 군사 기지 폐쇄	
4월, 유엔 인권위원회의 쿠바의 인권 비판으로 외교위기 발생. 멕시코를 비롯, 옛 동맹국 다수가 비판에 동참함에 따라 비판을 주도한 우루과이와 단교	
5월, 존 볼턴 미 국무부 차관, 쿠바가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쿠바를 '악의 축' 국가 목록에 추가	
5월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생물무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 1959년 혁명 이후 쿠바를 방문한 최초의 전직 또는 현직 미국 대통령	
6월 - 국회는 사회주의 정부 체제를 영구적이고 불가침적인 것으로 헌법 개정	
반체제 운동과 국제사회의 우려	
2003년 3월, 반체제 인사에 대한 '검은 봄(Primavera Negra)' 탄압으로 국제적인 비난 쇄도. 75명이 최대 28년의 징역형 선고, 미국행 위해 페리를 납치한 3명 처형	
6월, 유럽연합이 쿠바의 인권상황에 항의하여 고위급 쿠바 방문을 중단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쿠바 인권상황에 대한 견책(censure)결의안을 1표차로 통과	
2004년 5월, 미국 제재로 미국-쿠바 가족 방문, 해외 거주자의 현금 송금이 제한	
10월, 대응조치로 미국 달러 거래금지 및 달러-페소 환전에 10%의 세금 부과	
2005년 1월, 반체제 인사 탄압으로 2003년에 동결된 유럽연합과의 외교적 관계 재개	
5월 약 200명의 반체제 인사들이 1959년 혁명 이후 처음으로 공개 집회	
2006년 카스트로 대통령이 아바나 소재 미국 이익사무소에 설치된 인권관련 메시지를 가리는 기념물 제막식 참가해 양국간 선전전 격화	
피델 카스트로의 퇴장과 라울의 전면 등장	
2006년 7월, 피델 카스트로가 위장수술을 받고 일시적으로 정부 통제권을 동생 라울 카스트로에게 인계	
12월,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복귀 5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그의 건강이상에 대한 루머 확산	
2007년 4월, 정권에 비판적인 변호사 및 언론인 대상, 비밀재판을 통해 장기징역형 선고, 인권운동가들은 이를 야당 활동에 대한 탄압의 전주곡으로 간주	
5월, 피델 카스트로가 아바나의 연례 노동절 퍼레이드 불참	
7월, 1959년 이후 처음으로 피델이 참석하지 않은 채 혁명의 날(7.26) 기념	
12월, 피델이 쿠바 TV 인터뷰 통해 무기한 권력 유지할 의지 없음을 밝힘.	
2008년 2월, 피델이 은퇴를 발표한 며칠 후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대통령에 취임	
5월, 휴대폰과 컴퓨터의 개인 소유 금지가 해제	
6월, 임금 평등제도 포기 발표. 1959년 혁명 이후 지켜져 온 정통 마르크스주의 경제 원칙을 포기하는 중요한 조치로 받아들여짐	
6월, EU가 반체제 인사 탄압을 이유로 2003년에 부과한 외교 제재 해제	
7월, 식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개인농이 활용가능한 토지한도 제한 완화	

미국·중국·러시아와의 새로운 외교관계 구축	
2008년	11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방문 1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방문. 쿠바산 니켈·설탕 지속구매 합의 12월,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군함이 아바나를 방문
2009년	1월, 라울 카스트로가 러시아 답방 3월, 미국 의회가 쿠바계 미국인의 아바나 방문과 송금에 대한 전임 부시 행정부의 제한조치를 해제하기로 의결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국내 정치·경제위기 심화	
2009년	5월, 에너지 절약 및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 프로그램 발표 6월, 미주기구(OAS)가 1962년에 부과된 쿠바의 회원국 자격 정지 조치 해제. 쿠바는 결정을 환영하지만 재가입 계획은 없다고 밝힘. 7월, 러시아와 멕시코만 쿠바 해역에서의 석유 탐사를 허용하는 협정에 서명
2010년	2월, 2003년 '검은 봄' 탄압에서 체포되어 복역중이던 정치범 올란도 사파타 타마요(Orlando Zapata Tamayo)가 단식 투쟁 85일 만에 사망. 5월, 아바나 대주교 하이메 오르테가(Jaime Ortega)의 중재에 따라 정치범의 배우자 및 어머니에 한해 시위 허용 7월, 교회와 스페인이 중재한 합의에 따라 반체제 인사 52명 석방 9월,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일자리 감축계획 발표. 1959년 혁명 이후 민간부분 확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변화로 받아들여짐
2011년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 여행에 대한 제한을 완화 3월, 2003년 '검은 봄' 탄압 당시 구금되었던 마지막 두 명의 정치범 석방
가속도가 붙은 경제개혁	
2011년	4월, 공산당대회에서 쿠바 국민의 해외여행 허용 가능성 검토 예정임을 발표 8월, 민간 기업을 장려하고 국가개입의 축소를 목표로 하는 경제 개혁을 승인 11월, 50년 만에 처음으로 개인이 사유 재산을 사고 팔 수 있는 법안 통과 12월, 교황 방문을 앞두고 사면의 일환으로 정치 범죄 수감자 2,500명을 석방
2012년	3월, 베네딕토 교황 방문. 미국의 쿠바제재를 비판, 쿠바의 인권 신장을 촉구 4월, 1959년 종교공휴일 인정 중단 이후 처음으로 성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 6월, 해외거주 쿠바인이 보낸 원조식량이 민간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식량 수입품에 관세 다시 부과시작 10월, 해외여행시 고가의 출국 허가증 구입의무 폐지. 단,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 등 고급기술전문가는 두뇌 유출 방지 위해 계속 허가 의무 부과
라울 카스트로 대통령 2기	
2013년	2월, 전국인민권력회의에서 라울 카스트로를 대통령으로 재선출
2014년	1월, 브라질과 합작으로 마리엘 경제특구 1단계 공사 착공

<p>3월, 인권개선을 조건으로 EU와의 외교관계 회복을 위한 회담 개시 7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중 쿠바를 방문, 舊소련 시절에 발생한 수십억 달러의 채무 변제 발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문 9월, 에볼라 전염병으로 피해 입은 서아프리카 국가에 수백 명의 의료진 파견</p>
<p>미국과의 관계 개선</p>
<p>2014년 12월, 오바마 미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50년 이상 단절된 양국 간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 발표 2015년 1월, 미국이 쿠바에 대한 여행 및 무역 제한 일부 완화 2월, 워싱턴에서 고위급회담 이후 완전한 관계 회복을 위한 진전 발표 5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삭제 7월, 양국간 대사관을 재개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교환 2016년 1월, 미국이 쿠바관련 여러 무역 제한을 완화 3월, EU와 관계 정상화에 합의. 3월, 오바마 대통령이 88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 5월,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중소기업 합법화 조치 발표</p>
<p>피델 카스트로의 사망 및 트럼프 행정부의 쿠바강경책</p>
<p>2016년 11월, 피델 카스트로 90세의 나이로 사망 2017년 1월, 미국이 쿠바 이민자에게 무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오랜 정책을 종료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대쿠바 완화 정책 일부 폐기 10월, 아바나 신드롬(아바나 주재 미국 및 캐나다 대사관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의문의 음파 공격)으로 인한 외교적 갈등 2018년 4월, 미겔 디아즈-카넬이 대통령으로 취임 카스트로 가문의 60년 통치 종식</p>
<p>트럼프 행정부의 제재강화로 경제위기 심화</p>
<p>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對쿠바 제재 강화, 코로나19의 확산 등에 따른 서비스, 무역수지 악화, 외환수급 불균형에 따른 수입대금 미지급 및 디폴트 발생 2019년 2월, 개헌으로 기존 국가평의회 의장이 독점하던 권력을 일부 분산 2021년 1월, 시장원리를 왜곡하던 이중화폐제도를 27년만에 폐지 8월, 민간 중소기업 설립 허용, 사유재산 인정,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며 자본주의를 악으로 규정하였던 기존입장 수정</p>
<p>미국 바이든정부 출범, 미겔 디아스-카넬 재선과 경제위기 극복 노력</p>
<p>2022년 5월, 바이든 대통령 대쿠바 제재 완화정책 시행(송금제한 상한액 폐지 등) 2022년 9월, 경제위기 심화로 쿠바탈출인구 급증, 1년간 미국으로 입국 시도 쿠바인원 총 2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 수준 2023년 4월,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 재선, 5년 임기 시작 2024년 2월, 1960년 단교 이후 대한민국과 외교관계 복원 3월, 가솔린 수급 정상화를 위해 리터당 가격 5배 인상 10월, 쿠바 정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30년까지 24% 달성 추진 발표</p>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달러화 사용 확대, 사회주의 우방 교류 확대

2025년 1월, 달러 현찰 및 신용카드 전용 국영상점 개점
 1월, 美트럼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쿠바 테러지원국 재지정, 쿠바 몰수재산 청구권 복원(1월 29일), 쿠바 거래제한기업목록 재발효 조치 도입
 5월, 디아스카넬 대통령 러시아 열병식 참여,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회담

2. 쿠바 경제현황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아직 회복하지 못했으며, 2026년에야 2019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구매력기준 1인당 GDP는 2024년 기준 15,949달러로 높은 편이나, 이는 무상 제공되는 공공의료·교육을 포함한 것으로 실질 가처분 소득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을 나타내지는 못함
- 2021년 화폐개혁으로 기존 외국인 전용화폐인 CUC가 폐지되고 CUP로 통일됨에 따라 급격한 인플레이 발생

<쿠바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백만명, 백만 달러, %, 달러)

	2023년	2024	2025년	2026년
인구	10.7	10.5	10.4	10.3
GDP	36,180	36,300	37,180	38,420
GDP 성장률	-1.9	-2.0	0.9	1.2
GDP(PPP)	166,500	167,100	171,100	176,800
1인당 GDP	3,368	3,455	3,585	3,723
1인당 GDP(PPP)	15,575	15,949	16,496	17,137
실업률	1.8	1.7	1.7	1.6
소비자물가상승률	39.9	29.9	22.2	20.9

[자료: EIU]

- GDP구성은 민간소비 51.5%, 정부지출 18.8%, 국내총투자 24.7%이며, 경제제재 및 국제경쟁력 부족으로 수출과 수입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향후 시장개방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쿠바 GDP 구성>

(단위: 달러,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2025년	2026년
GDP	107,352	545218	1031287	1665498	1931357	2267858	2504499
- 민간소비지출 (GDP 비중)	54,345 (50.6)	11,881 (52.3)	12,463 (49.4)	13836 (51.7)	14,605 (51.9)	15,060 (50.7)	15866 (50.4)
- 정부소비지출 (GDP 비중)	41,704 (38.8)	184,428 (33.8)	318,299 (30.9)	532,234 (32.0)	604,681 (31.3)	689,962 (30.4)	751,143 (30.0)
- 국내총투자 (GDP 비중)	10,601 (9.9)	129,822 (23.8)	227,485 (22.1)	391,462 (23.5)	462,624 (24.0)	552,075 (24.3)	626,754 (25.0)
- 순수출	702	-2,257	-979	-3,679	-2,982	-1,626	-1,367
* 수출 (GDP 비중)	8,769 (8.2)	8,019 (35.3)	15,731 (36.6)	22,730 (39.5)	18,666 (43.2)	17,203 (47.6)	15,616 (49.1)
* 수입 (GDP 비중)	8,067 (7.5)	10,276 (45.2)	16,710 (38.8)	26,409 (45.9)	21,648 (50.1)	18,829 (52.1)	16,983 (53.4)

[자료: EIU]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더해 서비스산업 부진으로 경상수지 악화

- 팬데믹 이전에는 관광수입(연 35억 달러 내외), 재외동포송금액(연 20억 달러 내외), 의료서비스 수출(연 60억~80억 달러) 등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 보전

<쿠바 경상수지>

(단위: 백만 달러,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2025년	2026년
경상수지 (GDP 비중)	2,016 (1.9)	854 (0.8)	-1,342 (-5.9)	-1,629 (-6.4)	-1,505 (-5.5)	-1,425 (-5.0)	-434 (-1.4)
수출	2,392	1,783	2,058	1,845	1,860	1,873	1,940
수입	-9,937	-7,230	-8,431	-9,300	-10,214	-11,261	-12,102
무역수지	-7,545	-5,447	-6,373	-7,454	-8,354	-9,388	-10,162
순FDI	805	644	708	921	1,197	1,317	1,449

[자료: EIU]

-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47.9%), 니켈(16.4%), 의약품(14.0%), 설탕(8%), 담배(4.7%) 등,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43%), 식품(16%), 화학제품(11%), 기계(4%) 등으로 나타남
- 주요 수출국으로는 캐나다(29.9%), 중국(20.3%), 스페인(9.0%), 베네주엘라(5.0%), 주요 수입국으로는 베네주엘라(14.8%), 중국(11.1%), 스페인(10.0%), 멕시코(4.3%) 등임

□ 한-쿠바 교역 동향

- 우리나라의 對쿠바 수출액은 미-쿠바 관계가 개선된 직후인 2017년 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對쿠바 제재 강화, 쿠바정부의 수입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출보험 중단 등의 이유로 지속 감소 - 쿠바 경제상황이 악화된 2022년 대쿠바 수출은 급격히 감소한 바 있음. 최근 도금강판이 호조를 보이며 2024년 총 수출액은 2,017만 달러를 기록함

<최근 10년간 한-쿠바 무역동향>

(단위: 천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4년	20,177	-43.4	7,906	15.9	12,271
2023년	35,679	158.4	6,846	-3.4	28,833
2022년	13,810	-38.3	7,086	78.5	6,724
2021년	22,396	6.1	3,969	-59.1	18,427
2020년	21,111	-49.9	9,700	113.2	11,411
2019년	42,167	-28.7	4,549	-31.6	37,618
2018년	59,158	-16.4	6,648	124.3	52,510
2017년	70,780	68.0	2,964	-48.2	67,816
2016년	42,139	-18.2	5,717	0.8	36,422
2015년	51,535	-7.7	5,671	-53.4	45,864
2014년	55,819	-3.5	12,172	25.1	43,647

[자료: KITA]

- 對쿠바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차량·선박용 부품 및 산업용 기계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수출물량은 對쿠바 제재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캐나다, 파나마, 멕시코 등에 소재한 에이전트를 통한 수출로 추정
- 이 경우 수출대금 납입 문제, 직접 거래에 따른 미국 제재 리스크 완화 가능

< 우리나라의 對쿠바 주요 수출품목 >

(단위: US\$ 천, %)

순번	코드	품목명	2023년		2024년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총계	35,679	158.4	20,177	-43.4
1	6137	도금강판	18,649	0.0	8,479	-54.5
2	7411	승용차	10,489	5,109.5	7,041	-32.9
3	7901	기타기계류	0	-99.9	1,640	82,021,700.0
4	7420	자동차부품	1,383	-0.4	491	-64.5
5	7412	화물자동차	400	172.3	487	21.7
6	7111	원동기	523	-55.8	409	-21.7
7	8491	회전기기 부분품	0	0.0	261	0.0
8	1336	윤활유	249	475.6	195	-21.7
9	7112	펌프	127	56.8	172	35.2
10	8352	축전지	381	45.1	169	-55.7

[자료: KITA]

수출품목	수출현황
완성차 및 부품	현대·기아자동차는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대쿠바 수출 중. 자동차는 관광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렌트카 중심으로 수입물량 결정되며, 최근 쿠바-중국 간의 경제협력 확대에 따라 중국산 수입 확대. 타이어, 부품 기업들도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수출.
디젤 발전기 및 부품	'05년~'07년 기간 중 현대중공업이 총 644대의 디젤 발전기 수주(8억달러 규모). 납품종료 후 연간 2천~3천만 달러 규모의 A/S 부품 수출하였으나 대금지급 애로 등으로 '18년 하반기부터 수출 중단
가전제품	삼성, LG, 대우 등이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수출 최근에는 경제사정 악화로 수출대금 지급 애로 발생

○ 對쿠바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일부 금속류, 시가, 럼주, 커피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對쿠바 주요 수입품목 >

(단위: US\$ 천, %)

순번	코드 (MTI)	품목명	2023년		2024년	
			수입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총계	6,823	-3.7	7,906	15.9
1	6221	동괴및스크랩	4,113	25.4	3,490	-15.1
2	0154	연초류	949	-8.0	1,727	81.9
3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364	-36.0	1,232	-9.6
4	2262	의약품	199	-49.2	701	251.6
5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70	99.3	384	448.6
6	9210	그림	25	-76.2	314	1,156.0
7	0157	주류	80	26.4	53	-34.4
8	4411	편직제의류	0	0.0	2	0.0
9	4490	기타섬유제품	0	0.0	1	0.0
10	8245	진공청소기	0	-100.0	1	0.0

[자료: KITA]

수입품목	수입현황
시가	홍콩 P사를 통해 국내 공급
럼	쿠바 대표 브랜드인 Havana Club을 프랑스계 에이전트사인 P사가 유통
커피	Crystal Mountain이라는 프리미엄 커피 소규모 수입,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되며, 물량부족으로 소량 수입에 그침. 최근 Cohiba, Montecristo 브랜드의 커피가 국내에서 소량 유통중

VI. 상관습 및 비즈니스 유의사항

□ 상관습 및 유의사항

- (공산주의) 정치적 발언, 체제 비교 등의 불필요한 언급 자제
 - * 국제전화 및 이메일 유의
- (국영기업의 독과점 수입) 쿠바는 정부가 지정한 국영공기업이 독과점 형태로 수입, 정부 부처별로 공기업들이 분야별 수입을 관장하기 때문에 중개상을 통하더라도 실질적인 바이어는 쿠바 정부임을 명심
- (평판관리) 정부 부처간 내부정보 교류가 매우 활발하고 특정 기업과의 업무내용이 정부내 부처 및 관련기관에 공지되기 때문에 업무상 실수 또는 약속 미이행 등의 사건 발생시, 관련 내용이 급속히 쿠바 전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 (관료주의) 국영기업에서 수입을 담당하는 쿠바 담당자는 공무원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거래선 변경이나 신제품 수입에 소극적임. 효과적인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현지인맥 관리는 필수적
- (지속적 관계유지) 쿠바기업과 거래관계가 구축되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외여행이 어려운 현지 사정상 거래처의 핵심인사를 방한초청하고 기술교육, 현장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
- (대금지연) 수입대금 지불시 개인자금이 아닌 정부예산으로 집행되는 관계로, 외환수급 상황이 악화되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지급하지 못함을 떳떳하게 밝힘. 2022년 이후 외화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대금 미지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선불거래) 쿠바의 만성적인 외환부족 문제로 외국기업이 쿠바산 제품을 수입시 기본적으로 100% 선금지급을 요구
 - * 기존에는 120일~720일까지의 외상수입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최소 360일, 보통 720일의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함

- (통신환경 취약) 열악한 통신환경으로 공용 이메일 사용시 수신용량이 제한되어있어 파일 첨부시에는 반드시 1Mb 이하의 문서로 할 것
- (시간관리) 약속된 면담시간 전에 도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 그러나 대중교통이 미비하여 쿠바 기업이 약속시간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적하거나 불쾌하게 여기지 말 것
- (가벼운 대화) 비즈니스 시작 전 5분에서 15분 간의 가벼운 담소 후 면담 시작. 형식 및 절차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면담의 목적 및 주제, 참석자 소개, 회사 소개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면담 진행

□ 비즈니스 옷차림

- 비즈니스 옷차림은 상당히 비공식적인 편으로, 남자는 상황에 따라 셔츠와 슬렉스로 포멀하게 연출, 더운 기후에 맞는 비즈니스 캐주얼이면 충분. 정부 공식행사 등에는 Guayabera(우리나라 모시옷과 비슷한 셔츠)를 착용할 수 있음. 여성의 경우 깔끔한 셔츠와 바지가 일반적이며, 스커트도 가능

□ 인사법

- 비즈니스 상 대면시 악수나 포옹이 일반적이며, 구면이거나 친한 사이일 경우 볼을 마주 대는 인사도 가능

VII. 체류정보

1. 일반사항

□ 입출국 유의사항

- 쿠바 관광부(Mintur)는 입국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중앙화 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국제 여행객에 대해 전자 비자를 의무화함
 - 기존의 종이 관광비자는 2025년 6월까지만 사용이 가능
 - 전자비자는 공식 비자발급 사이트인 <https://evisacuba.cu/> 혹은 사설 비자발급 사이트 <https://novelacuba.com/en/visa> 에서 구매가 가능 (1인당 22유로 수준)
- 공항입국심사 시 쿠바 입국을 위한 사전질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QR코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별도의 수화물 검사를 거쳐야 함
 - 사전질의서는 쿠바 도착 48시간 이전부터 쿠바정부 사이트 (<https://dviajeros.mitrans.gob.cu/>)에서 작성 가능하며, 1인당 1건씩 모두 작성하여야 함
- 쿠바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쿠바방문 기록이 있을 시, 미국 전자여행허가제도(ESTA)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쿠바 여행 이후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정식 비자를 신청해야 함

< ESTA 홈페이지 FAQ >

(질문) How does Cuba's designation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impact my travel to the United States using my approved ESTA?

(답변) If a traveler is found to have visited a country designated as State Sponsor of Terrorism, the traveler is no longer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e Visa Wavier Program and must apply for a visa to enter the United States.

- 쿠바 기업 및 기관 방문 시에는 관광비자 대신 상용비자(D7)를 발급하여 입국해야 함
 - 발급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되며 초청기관에 따라 US\$ 10~85의 비용이 소요됨. 발급은 쿠바 측 파트너 기업에서 하는 것이 원칙임.
- 2022년 5월, 코로나19 관련 입국 시 방역절차를 모두 폐지하였으며, 이에 기존의 PCR 음성결과지 및 백신 접종증명서 등의 지참이 불필요함
- 입국심사가 끝나면 휴대 수화물을 엑스레이 검색대에 통과
- 수화물 수취대에서 부친 짐을 찾은 후 입국장으로 나갈 때 세관원은 수화물 태그를 일일이 확인함
 - 수화물 태그에 검사표시가 되어있는 경우는 별도의 세관검사를 받아야함(음식물, 의약품, 전자제품 등)
 - 근거리 무선통신장비(워키토키 등), 드론, 프로젝터 등은 반입이 불가

□ 신변안전 및 치안

- 시내 곳곳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어 대로변은 치안에 문제가 없으나, 관광객이 많은 구시가지(Old Havana) 등은 주간에도 소매치기가 있으므로 유의 필요
- 해안도로 (Malecon, 말레콘) 야간 보행시 생계형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혼자서 늦게까지 이동하는 것은 자제 필요
- 단신으로 여행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캣콜링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거부의를 단호히 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
- 초면의 현지인이 제공하는 음료, 주류 등은 절대 섭취하지 않는 것을 추천

□ 사용화폐 및 환전

- 2025년 1월 정부가 관광지의 달러 현찰 사용을 허용하면서 주요 관광지(국영 상점, 호텔 등)에서는 달러 현찰과 신용카드(Visa, Master 등)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 반면 국영 상점, 호텔 등에서는 쿠바 페소(CUP)는 받지 않음
- 쿠바 기본 화폐단위인 페소(Peso, MN, CUP)는 달러에 고정되어 있으며 (US\$ 1 = CUP 120), 환전시 3% 내외의 수수료가 부과되어 110.4가 적용됨
 - 환전은 쿠바 정부가 운영하는 환전소 (CADECA)를 이용해야 함
 - 기업간 거래(은행계좌이체)시에는 US\$ 1 = CUP 24의 환율이 적용됨
 - 쿠바 페소 현찰은 민간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식당, 상점 등에서 사용 가능
 - * 다만 상품 가격은 비공식 환율 (대략 US\$ 1 = CUP 350~370) 기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흔함. 쿠바 정부는 비공식 환율 환전을 금지하고 있음

□ 신용/직불카드 사용

- 공항, 외국환 상점, 호텔 및 외국인 전용병원 등에서 사용 가능
- 한국 등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발행한 VISA, Mastercard는 사용 가능, 미국에서 발행한 Visa, Master, American Express는 사용 불가
- 국내은행 발행 직불카드로 ATM을 통해 CUP 인출 가능하며 3% 내외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USD→CUP의 이중환전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음
 - 은행별, 카드별 출금 가능여부가 상이하므로 출국전 확인 및 사전등록이 필요하며 만약을 대비, 복수의 카드 지참을 권유

□ 통신

- 쿠바 내 전화, 인터넷 관련 모든 사항은 국영통신회사(ETECSA)에서 관리
- 외국인도 여권 지참시 현지 USIM 구입 가능
- 쿠바에서는 한국통신사의 로밍을 사용할 수 없음.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에 쿠바 SIM카드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매방법은 아래와 같음

- CubacelTur (데이터 6Gb, 통화 100분, SMS 100통, 가격은 USD 40)

* <https://cuba.dtone.com> 접속 → Suena Cuba 선택 → Tourist Sim Card 선택 → 개인정보 입력 → 결제 → 아바나 공항 도착 후 Etecsa 사무실에서 수령

○ 현지전화 이용 방법

국가번호 : +53	쿠바 국내전화(유선)	지역번호 + 전화번호
	쿠바 국내전화(무선)	핸드폰 번호만 입력 (5로 시작)
	국제전화	00+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

○ 민간주택의 경우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고 정부주택의 경우에도 비싼 이용료로 가정 내 인터넷 사용이 드문 편임

○ 우체국 (Correo de Cuba)에서 한국으로의 국제우편과 엽서 발송이 가능
- 국제특송은 DHL만 가능. FEDEX는 미국기업이라 쿠바에 미진출

▣ 생활정보

○ 전압은 110v 및 220v가 혼용되어있으며, 변환 플러그 지참 필수

○ 건기(11월~4월)와 우기(5월~10월)가 뚜렷한 사바나 기후대로, 여름(6월~9월) 낮 최고기온은 37도에 이를 정도로 더운편이며, 겨울(12월~2월)의 낮 평균기온은 25도, 밤 평균기온은 15도 수준임

○ 지리적 특성상 습도가 높아 통풍이 잘되는 옷이나 여벌의 옷을 충분히 준비

○ 9월~11월 사이에는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하므로 출장 계획시 참고

○ 식수는 반드시 슈퍼마켓 또는 주유소에서 생수를 구입

○ 외국인 관광객은 통상적으로 10% 수준의 팁을 지급하며, 일부 식당의 경우 팁이 계산서에 포함되어있음

○ 대중교통이 매우 취약한 편으로, 외국인의 경우 시내 이동시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택시는 정부택시(노란색 세단 또는 Van)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주요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개인택시 기사들의 호객행위가 잦은 편임. 운임은 흥정 가능하나 대략적인 시세를 모르거나 스페인어 구사가 어려울 경우 과다요금 징수가 잦음

- 관공서는 주로 토, 일요일 휴무이며 정부관리 문화재는 주로 월요일 휴무
- 아바나의 여행사, CADECA 등 관광 관련 사무실은 대부분 무휴, 지방은 일요일 휴무가 일반적
- 주요 공휴일 (2025년)

일자	내용	일자	내용
1.1(수)	해방 기념일	7.26(토)	혁명 기념일
1.2(목)	승리 기념일	7.28(월)	(임시) 혁명 기념일
4.18(금)	성 금요일	10.10(목)	독립 기념일
5.1(목)	노동절	12.25(수)	성탄절
7.25(금)	혁명기념일	12.31(화)	선달그믐

- 여권 분실 등 비상상황 발생시 주쿠바대한민국대사관에 지원 요청
 - 대표번호(근무시간) : +53-7204-0977, 0988
 - 긴급상황 발생 시(근무시간 외) : +53-6345-6317
 - 주소 : 5ta Avenida entre Calle 76 y 78, Edificio Barcelona, Oficina 301, Centro de Negocios Miramar, Playa, La Habana, Cuba

○ 비상연락망

연락처	내용	연락처	내용
104	응급차	105	화재신고
106	경찰	834-4446/7	쿠바나 항공

2. 주요 관광지

01. 혁명 광장 & 호세 마르티 기념탑 (Plaza de Revolucion)

- 소개**
- 주요 국경일에 대규모 군중집회가 열리는 쿠바의 대표적 광장
 - 바로 옆 내무부 건물 벽에 혁명영웅 '체 게바라'의 철제얼굴 모습이 있음.
 - 아바나의 랜드마크인 호세 마르티 기념탑에는 쿠바의 독립전쟁 영웅 호세 마르티 관련 자료가 전시됨.



주소 Calle Paseo y Ave. Independencia. Plaza de la Revolucion. La Habana, Avenida Paseo, La Habana

운영시간	상시	무역관평가	중요도	★★★★★
입장료	없음		키워드	#광장 #랜드마크 #인기관광지
홈페이지	없음			

02. 까삐톨리오 (El Capitolio)

- 소개**
- 1929년 당시 대통령인 마차도의 사업으로 미국 국회의사당을 본따 더 큰 규모로 만들었던 국회의 사당
 - 이후 쿠바정부의 과학기술부 건물로 사용되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보수공사 중으로 외벽 펜스만 철거한 상태
 - 92m 달하는 높이와 규모있는 돔 형태는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담당



주소 Paseo de Marti, Havana 10200, Cuba

운영시간	매일 10:30-22:00	무역관평가	중요도	★★★★★
입장료	없음		키워드	#랜드마크 #국회의사당 #인기관광지
홈페이지	없음			

03. 헤밍웨이 박물관 (Museo Memorial Ernest Hemmingway)

소개

- <노인과 바다>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소설가 헤밍웨이가 1940년부터 1960년까지 거주한 저택
- 타자기, 동물박제, 9,000여 권의 장서가 보존되어 있음.



주소

Finca la Vigia, San Francisco de Paula, Carretera Central Km 12.5, La Habana

운영시간

- 월별로 상이
- (1월-6월) 수-일 09:30-15:15
 - (7월-8월) 우천시 휴무
 - (9월-12월) 수-일 09:30-16:15

입장료

- CUC 3
- 가이드 포함 시 : CUC 4
 - 사진 촬영 포함 시 : CUC 5
 - 비디오 촬영 포함 시 : CUC 25

홈페이지

없음

무역관평가

중요도 ★★★★★
키워드 #위인 #역사 #박물관

04. 알라시아 알론소 아바나 대극장 (Gran Teatro de la Habana Alicia Alonso)

소개

- 센트로 아바나를 지나면 가장 눈에 띄는 건물
- 1838년에 지었던 타콘 극장의 자리에 건축가 파울 벨라우가 1815년 현재의 모습으로 완공
-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대극장으로 2016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음.



주소

458 Paseo de Marti, La Habana 10600

운영시간

금-일 20:30-22:00

무역관평가

중요도 ★★★★★

입장료

없음

키워드 #랜드마크 #극장

홈페이지

<http://www.balletcuba.cult.cu/gran-teatro-de-la-habana/>

05. 산 프란시스코 수도원 (Iglesia de San Francisco de Asis)

소개

- 바로크 양식의 수도원/교회로 아바나 최고의 전 망대
- 1608년에 처음 지어졌다가 1739년에 재건. 1970년대 다시 지어짐(수도원 탑의 높이 46m)
- 아르마스 광장에서 오피시오스(Oficios) 거리를 따라 남쪽으로 세 블록 걸다 보면 산 프란시스코 광장이 있으며, 올드 아바나에서 가장 전망이 아름다운 광장으로 알려짐.



주 소 Oficios, La Habana

운영시간 09:00-18:00

무역관평가

중요도 ★★★★★

입 장 료 없음

키워드 #광장 #전망대

홈페이지 없음

06. 오비스포 거리 (Calle Obispo)

소개

- 올드 아바나의 여행자 거리 중 하나로 가장 변화한 인기 있는 곳
- 파세오 데 마르티에서 시작해 아르마스 광장까지 이어짐.
- 국영 환전소, 호텔 전화국, 관광 안내소, 레스토랑, 기념품 숍 등이 있음.



주 소 Obispo, La Habana

운영시간 상시

무역관평가

중요도 ★★★★★

입 장 료 없음

키워드 #변화가

홈페이지 없음

07. 혁명 박물관 (Museo de Revolucion)

- 소개**
- 1959년 혁명 이전에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현재 혁명관련 사진, 무기, 의류 등이 전시되어 있음.
 - 1956년 혁명군이 멕시코에서 쿠바로 타고 왔던 소형 요트 그란마(Granma)를 볼 수 있음.



주소 Avenida Belgica, La Habana

운영시간 09:30-16:00

무역관평가 중요도 ★★★

입장료 없음

키워드 #박물관 #대통령 관저

홈페이지 없음

08. 럼 박물관 (Museo de Ron)

- 소개**
- 쿠바의 국제적 럼 브랜드 Havana Club이 운영하는 박물관
 - 사탕수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부터 증류에 이르기까지 럼의 제조 과정을 상세히 보여줌.
 - 럼을 제조하던 기구, 사탕수수를 운반하던 기차의 미니어처 등도 볼거리



주소 El Museo del Ron Havana Club Avenida del Puerto 262, esq. Sol, Habana Vieja Ciudad de La Habana

운영시간 월-목 09:30-16:00, 금-일 09:00-16:00

무역관평가 중요도 ★★★

입장료 CUC 7

키워드 #박물관 #이색체험

홈페이지 <https://havana-club.com/>

| 쿠바

09. 산호세 예술품 시장 (Almacenes de San Jose)

- 소 개**
- 1885년 지어진 항구 창고를 개조해 2009년 오픈 한 곳으로 쿠바 300여명의 예술가들이 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판매
 - 쿠바의 그림, 조각품, 수공예품, 아프로-쿠반 타악기, 악세사리 등 다양한 예술품과 기념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관광 명소



주 소 Avenida del Puerto corner of Calle Cuba, La Habana

운영시간 화-일 09:00-20:00(월요일 휴무) **무역관평가** **중요도** ★★★
입 장 료 없음 **키워드** #쇼핑 #예술품
홈페이지 없음

10. 아르마스 광장 (Plaza de Armas)

- 소 개**
- 군대의 광장이라는 이름의 이 광장은 1519년 스페인 군대의 훈련 장소로 건설됨.
 - 광장 주변으로 시립박물관, 아바나 최초의 사원 엘 템플레테와 거리 중고 책 가판대, 벵룩 시장 등 볼거리가 많음.



주 소 Calle Tacon e/ Obispo y O'Relly

운영시간 상시 **무역관평가** **중요도** ★★★
입 장 료 없음 **키워드** #광장 #벵룩시장
홈페이지 없음

3. 식당 정보

번호	레스토랑	음식종류	주소	전화
1	Amigos del Mar	해산물	#511 e/ 5ta A y 5ta B, Playa, La, Calle 0	7203-1196
2	Casa Mia	쿠반	Calle 1ra, No.103, entre C y D	7832-9735
3	Comida China	중식	210 Calle C	-
4	Draquecitos	스페인	Calle San Ignacio entre Paula y Merced	7864-6941
5	FRESS	바	Calle 20 e/ 3ra y 5ta., Miramar	5360-7070
6	Habana Mia 7	쿠반	Avenida Paseo #7 altos, e/ 1ra y, 3ra	7830-2287
7	Hecho en Casa	인터내셔널	Calle 14 No. 511 entre 5ta. y 7ma	7202-5392
8	Ivan Chef Justo	인터내셔널	11, Aguacate, La Habana	7863-9697
9	La Bodega	인터내셔널	Calle 2, 508 e/21 y 23	5967-8521
10	La Corte del Príncipe	이탈리안	74 9na A, La Habana	5555-9091
11	La Esperanza	인터내셔널	105 Calle 16, La Habana	7202-4361
12	La Foresta	해산물	Calle 17 # 17403 e/ 174 y 176 Siboney	7271-2777
13	Lo De Monik	쿠반	Chacon esq Compostela , Havana	7864-4029
14	MAREA	인터내셔널	25804 Avenida 5ta, La Habana	7290-7692
15	Marechiaro	이탈리안	217 Malecon, La Habana	-
16	Nero di Seppia	이탈리안	Calle 6 #122 entre 1ra y 3ra, Miramar	5478-7871
17	Otramanera	인터내셔널	1810 Avenida 35, La Habana	7203-8315
18	Paco's Mar	해산물	San Isidro y Cuba, Havana	5916-3131
19	Pazillo	바	6. Vedado., 10400, Calle 5	7835-1106
20	Por un Cafe	카페	0/ 1ra y 3ra, Miramar	7203-5911
21	San Cristobal	쿠반	San Rafael 469, e/ Lealtad y Campanario	7860-1705
22	Santy Pescador	해산물	240A E/ 3raC y Rio, La Habana	7272-4998
23	Sensaciones	인터내셔널	Calle 70 #902 e/ 9na y 11, Playa	7206-1831
24	Tien Tan Miramar	중식	44 #4406 e/ 3ra y 5ta, Miramar, Playa	7206-2543
25	TocaMadera	쿠반	Calle 38 e/1ra y 3ra, Miramar, Playa	5281-2144
26	TOROS & TAPAS	스페인	no. 124, calle 6, Havana	7202-1548
27	Totò e Peppino	이탈리안	Calle 8 Entre 5ta Y Calzada, Vedado	5250-3196
28	Vistamar	인터내셔널	Avenida 1ra No. 2206 e/ 22 y 24 Miramar	7203-8328
29	Arrecife	인터내셔널	Calle 32, & Avenida 1ra, La Habana	5614-6377

4. 무역관 오시는 방법

☐ 무역관 연락처

- 주소 : Ave. 3ra e/ 76 y 78, Edificio Santa Clara, Oficina 412, Miramar Trade Center, La Habana, Cuba
- 전화 : +53-7-204-1020 / 204-1117

☐ 공항에서 오시는 방법

- 공항내 환전소(Casa de Cambio / CADECA)에서 환전 후 택시 이용 (요금: USD 30~40)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